SPORTSDONGA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에디션
sports.donga.com
2010년 1월 22일 금요일 10판 제566호

"나흘간 지지고 볶다… 아이폰, 네게 반했어"

본지기자 생생체험기 '아·이·폰'의 모든 것

'아이폰을 살까,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을 살까.' 정말 한참 고민했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자기가 쓰는 제품이 "좋다"고 한다. 식당도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맛있는 법. 결국 요즘 이런저런 화제가 많고 말도 많은 아이폰을 사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폰을 산 후 겪은 나흘의 시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투'의 연속이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 첫 날. 아이폰에 말 거는 단계

"아이폰에 대해 알고 오셨습니까?"

"벨소리 다운 받으려면 1시간이 걸리는데도, 정말 사시겠습니까?"

굳은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두 개의 질문을 연이어 던지는 매장 점원.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어서옵쇼'는 못할망정 기분 나쁘게 별 이상한 걸 물어본다. 알고 보니 아이폰은 포장을 뜯는 순간 무조건 2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단다. 그럼 제품 포장을 뜯었는데, 마음이 바뀌어 안사면? 환불이 안되는 것은 물론. 만약 실수로 포장을 뜯더라도 그냥 사야 한다. 참고로 그래서 아이폰 판매 사원은 아무나 못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이폰은 한 달 사용요금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가장 비싼 9만5000원짜리(800분 무료통화)면 단말기는 공짜, 6만5000원(400분 무료통화)짜리 요금제는 한달에 5500원씩 할부금을 낸다. 서류를 작성하고 약 1시간 동안 '동기화'라는 개통 과정을 거쳐 받은 아이폰. 버튼을 꾹꾹 눌러 쓰는 전화기만 썼던 기자에게 '톡' 건드리면 작동되는 터치패드 방식부터 신기했다. 아이폰을 쓰기 위해 이동통신사도 13년간 쓰던 S사에서 K사로 옮겼다. 가족과 취재원들에게 번호 변경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회신의 90%가 '아이폰 사셨군요?'다. 정말 귀신같은 사람들이다.

● 둘째 날. 어플 매력에 빠지다.

'어플'을 깔아보기로 했다. 주변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만났다 하면 화제로 등장하던 그 어플. 어플은 '응용프로그램'이란 뜻을 가진 컴퓨터용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이다. 이 어플에 따라 아이폰의 기능은 무궁무진, 다양해진다. 어플을 받기 위해선, 파일 공유를 위해 P2P 프로그램을 깔 듯, 아이튠즈를 깔아야 한다. 아이폰을 쓰는 지인을 통해 아이튠즈 이용법을 물어보고 공짜 어플, 필수 어필도 추천받았다. 공짜 어플은 일단 받아놓고 보지만, 유료 어플은 사용 후기를 꼼꼼히 읽어야 헛돈 날리지 않는다.

오호, 그런데 수많은 어플 중에 '아시아 큰 가슴' '섹시화보' 어플에 힐끗힐끗 시선이 간다. '여기에 이런 어플…'하면서도 괜히 클릭을 하는 건, 수컷의 본능일까. 그런데 열어보니 ★모양이나 ♥모양으로 '결정적인 곳'만 가린 야한 사진이 있는 어플이다. "음, 미끼 사진으로 유혹해 결국 '결제'를 클릭하게 만드는 속셈이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어플을 탐색하다 무료 어플 14개를 다운받았다. 내 아이폰에 새로운 14개의 기능이 생긴 것이다. 나 이제 아이폰에 제대로 빠져든 것인가.

● 셋째 날. '편리한 세상'을 체험하는 단계

그동안 통화, 문자메시지 외에 휴대전화를 요긴하게 쓰는 때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네비게이션 사용이 전부였다. 하지만 아이폰을 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우선 출근 전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전에는 TV를 켜고 일기예보나 뉴스에 채널을 맞춘 뒤 화면에 '서울'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오늘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날씨를 알려주는 어플로 바로 확인이 가능. 집 앞 버스정류장에 내가 탈 버스가 오는 시간도 알 수 있어 추운 날씨에 기다릴 필요도 없다. 내가 걷고 있는 거리의 맛집도 순식간에 알아낸다.

써보니 불편한 점도 꽤 있다. 우선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오타 작렬. 정전식 터치 방식이다 보니 내 의도와 다른 키를 치는 오타가 자주 난다. 'ㅇ'을 치려는데 자꾸 옆의 'ㄴ'이 뜬다. 나도 애들처럼 양손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독수리 타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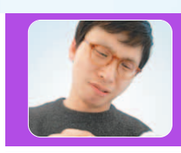
아이폰 속 한글자판은 컴퓨터와 동일하지만, 독수리 타법으로 변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배열의 자판으로 보인다. 독수리 타법으로 문자를 보내면 아이폰 비사용자들로부터 꼭 이런 소릴 듣는다. "아이폰 불편하지?" 아, 고독하다.

● 넷째 날. 아이폰이 일상이 되는 단계

아이폰 사용자들끼리는 '끈끈한' 동료의식이 생긴다.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친하게 느껴진다. 사용자끼리 무료 채팅이 가능하고, 두 기계를 살짝 충돌시키면 정보가 공유되고, 각자 서로 다른 악기 기능을 선택해 합주도 가능하다. 기자도 아이폰 사용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걸 체험했다.

전에는 기자에게 휴대전화는 '통화하는 기계'였다. 인터넷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폰의 최대 강점은 인터넷을 아무데서나, 그것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폰 동료들은 인터넷을 안쓰는 기자에게 핀잔을 준다. 자장면집에 와서 단무지만 먹는다고. 이들에겐 아이폰이 '통화되는 컴퓨터'였던 것이다. 무선 랜이 되는 곳이면 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다. 웬만한 커피전문점에서는 초고속 랜을 사용하는 듯 빠르다. 하지만 주의. 여기에 함정이 있다. 3G를 기반으로 한 어플을 자주 사용하면 한 달 후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Q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새로운 문물에 대충대충 적응해 살던 김원겸 기자.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환불 불가…2년 의무사용…'어플'따라 아이폰 흥망성쇠
귀차니즘, 그들에겐…
나, 그냥 전화기야

날씨·버스 도착시간 확인…걷고있는 거리 맛집도 찾아내
최강 무기 '아무데서나 인터넷'
나, 통화되는 컴퓨터야

I am 아이폰

이름: 아이폰
생년월일: 2007년 6월29일
한국생일: 2009년 11월28일
키: 115.5x62.1mm
체중: 135g
허리사이즈(두께): 12.3mm
아이큐(메모리): 16GB/32GB
용모(화면): 8.9cm(대각선) 480x320 픽셀 해상도 무수은 LCD
시력(카메라): 300만 화소
언어능력(사용가능 언어): 슬로바키아어, 히브리어 등 30개국어
기타 신체특징: PVC 일체 사용 없는 친환경 신체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검은 유혹 '탈옥폰'을 아십니까? •아이폰이 엔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추천 어플과 에필로그 E2면

〈광고〉

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위험보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평생 동안 자신이 번 돈의 약 5%인 7,700여 만원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생애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7,734만원에 달해, 올해 국민 1인당 소득이 1,900만원 안팎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평생소득 대비 한국인의 의료비 지출은 5%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여러 손해보험사들을 통해 의료실손 보장보험이 크게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핵가족화의 진행해 따라 생명보험사들의 보장자산 준비를 위한 종신보험, 정기보험 또한 꾸준히 가입되어 왔다

이처럼 위험보장에 대한 두 가지 큰 보장과 관련하여 수호천사로 고객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동양생명이 2010년 1월 다이렉트 광고를 통한 실손보장형 정기보험인 "(무)수호천사 프리미엄정기보험" 을 출시하였다.

동양생명은 기존 실손형 의료비보장 상품을 출시하면서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에만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정기보험을 추가하며 상품 구성을 늘렸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보장하지만 일정기간 또는 특정연령까지로 보험 기간을 제한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싸다.

여기에 의료비 보장 특약을 추가하면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등 본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쓴 비용의 90%까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비례보상되며, 외래는 회당 1~2만원, 처방조제비는 건당 8천원 공제한 금액의 100% 지급)

10년, 갱신형 순수보장형으로, 사망 보장 기간은 80세까지이다. 가입 연령은 만15~60세 이며 가입 금액은 20억원까지 가능하다.

* 이보험은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공사가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양생명 퍼스트원센터 (080-899-6500)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무료상담전화
080-899-6500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001호(2010. 01. 14)